

함께 걸으며 느낀 Mar 여정 ... (1월 3일 2026년 - KCLC 동종부)



"**MAR** 행사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공동체에도, 형제자매님들의 다녀오신 후기가 **MAR** 행사를 조금 더 편안하고 친숙하게 느끼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MAR** 행사에는 더 많은 참여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찰을 공유합니다"

내려놓으며 걸었던 여정 "불편함과 낯섦 속에서도 함께 걸으며, 나를 내려놓을 때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음을 깨닫게 한 **MAR** 여정이었습니다"

"다시 보아라"라는 초대 "다시 보아라" 하시는 주님의 초대 안에서, 서로를 새롭게 바라볼 때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음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눔 안에서의 성찰 "익숙하지 않은 일정 속에서도 서로를 쟁기며 나누는 가운데, 개인적 성찰과 CLC의 과제를 함께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름 안에서의 축복 "모든 것이 달라도 함께할 수 있음이...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축복임을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걷는 공동체의 기쁨 "전·현 의장님을 따라 지하철을 타고 ~~ 어린아이처럼 재잘거리며 핑거푸드를 끌고 걷는 자매님들과 오랜만에 다시 만난 얼굴들 속에서, 함께 걷고 나누는 공동체의 새로운 아름다움과 기쁨을 다시 발견한 시간이었습니다"

젊은이들과의 연결에 대한 질문 “젊은 층과의 연결에 대한 질문을 마음에 품으며, CLCer로서 하느님의 부르심에 더 마음을 열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

참여 감소에 대한 성찰 “기존 MAR 회원과 일부 그룹의 참여 감소에 대한 아쉬움 속에서, MAR 행사는 젊은이 초대와 참여가 매우 시급한 과제임을 깊이 성찰하게 한 시간이었습니다 “

주님을 향해 열린 마음 “구유의 나눔 체험을 들으면서 주님을 향한 마음이 살아 움직였고, 하나하나의 순간이 빛이 되어 더 주님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었다 “

만남으로 드러난 CLC의 삶 “젊은 이들을 초대하고 동행하는 CLC의 삶이 구체적인 만남과 결실로 드러나는 시간을 체험하였다 “

사랑을 멈추지 않겠다는 다짐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도 부르심에 응답해, 사랑을 멈추지 않겠다는 감사와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

반가움과 아쉬움 “새로운 회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미주 전체 CLC 회원들을 만나 반가웠지만, 각 문화 그룹의 참여가 낮았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

참여를 가로막는 인식 “MAR 미팅이 리더들만의 자리로 인식되거나, 영어권 CLC 회원들과의 만남이 참여를 어렵게 느끼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공동체의 기쁨 “가정의 소중함에 대한 성찰 나눔과 동중부 KCLC의 간식 ~ 그리고 EXCO의 수고 안에서 이번 만남은 MAR 공동체의 기쁨이었습니다 “



KCLC 동중부